

Rule.md

데일리 시황 브리핑을 만드는 규칙. Claude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 **"Rule.md 보고 오늘 시황 뽑아줘"**

이 파일은 ***방법***을 적는다. ***모양***은 `Skeleton.html`과 `Setting/`이 맡는다.
방법을 바꾸려면 이 파일만, 모양을 바꾸려면 저쪽만 고친다. 둘은 서로를 모른다.

0. 세 파일의 역할

파일	답하는 질문	언제 고치나
`Rule.md`	무엇을 모으고,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쓰는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았을 때
`Skeleton.html`	어디에 무엇이 놓이고, 어떻게 보이는가	더 좋은 모양을 찾았을 때
`Setting/Design.md`, `Setting/\*.ttf`	왜 그렇게 보여야 하는가 (원칙), 무슨 글꼴인가	디자인 철학이나 글꼴을 바꿀 때

결과물은 `out/YYYY-MM-DD.html`에 쌓인다. 결과물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다.
글꼴까지 안에 심은 파일 하나이므로, 그 자체로 어디서든 열린다.

1. 목적과 독자

목적

매일, ****세계와 국내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왜 그런지****를 5~7분 안에 파악하게 한다.
매매 추천서가 아니다.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그런가****에 답한다.

독자

두 명. 이 파일의 소유자와 그 친구. 둘 다 증권사에서 일하며 시장 어휘에 익숙하다.

- bp, 커브, 컨센서스, 수급, 정산가 같은 용어는 설명 없이 쓴다.
-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는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린다"는 독자가 안다.
관찰("금리가 올랐고 주식이 내렸다")과 연결("같은 날 유가도 올랐다")만 쓴다.
- 지수가 몇 % 올랐는지보다 ****왜 올랐는지****에 지면을 쓴다.
- 단기 매매 신호(이평선, 골든크로스, 거래대금 급증)는 넣지 않는다.
- 금리 · 환율 · 원자재 · 정책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다.**** 숫자 나열이 아니다.
- ****어제와 달라진 것을 앞에 둔다.**** 며칠째 같은 이야기면 그렇다고 명시한다. 변화 없음도 정보다.

2. 문서의 형태

`Skeleton.html`의 순서와 클래스명을 그대로 따른다. 매일 같은 모양이어야 며칠치를 비교할 수 있다.
각 섹션은 하나의 질문에 답한다. 답이 없으면 그 섹션은 짧아지되 비지 않는다.

#	섹션	답하는 질문
1	헤더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쓴 문서인가
2	오늘의 요약	그 사실이 왜 오늘의 핵심이고 무슨 이야기인가
3	경제 온도계	금리 · 물가 · 성장 · 위험선호 네 축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판단)
4	지표	오늘의 수치는 무엇인가 (표 5개)
5	흐름 읽기	왜 그렇게 움직였는가 (본문 5문단, 첫 문장 굵게)
6	이번 주	이번 주는 어떤 모양이었는가 (কে적 4개 + 요일별 한 줄)
7	눈여겨볼 뉴스	오늘 알아야 할 사건은 무엇인가 (3~5건)
8	다가오는 일정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9	푸터	어디서 가져왔고 무엇을 못 구했는가

> ****순서의 이유.**** 한 줄 요약 다음에 온도계가 오는 것은, 독자가 숫자를 보기 전에
> 판단부터 받아야 숫자가 읽히기 때문이다. 온도계는 표에 없는 정보(판단)이고,
> 표는 온도계에 없는 정보(수치)다. 둘이 겹치지 않는다.

2.1 헤더와 오늘의 요약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독자가 이것만 읽고 달아도 오늘을 안다.
****헤더는 사실, 요약은 이야기.**** 둘이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제목(h1)**** - 오늘의 핵심 사실을 측정값으로. 판단이나 서사가 아니다.

- 주어와 숫자가 있어야 한다. "연준 인상 확률 90%, 코스피 7,000선 반납" (0).
"인상 확률 90%, 코스피는 내렸다" (X, 무엇의 인상인지 모호).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X, 측정값 없음).
- 사실 두 개까지, 심표로 잇는다. 32px에서 두 줄, 약 22자 안쪽.
- 그날 가장 큰 숫자 하나와 국내 결과 하나가 기본 조합이다.

****오늘의 요약(ledede)**** - 그 사실이 왜 오늘의 핵심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 `line`: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34자 안쪽. 헤더의 숫자를 반복하지 않는다.
- `note`: 어제와 무엇이 다른지, 서로 다른 시장이 어떻게 엮혔는지. 두세 문장.

2.2 경제 온도계

네 축의 상태를 정해진 어휘로 적는다. 어휘를 고정해야 며칠치를 비교할 수 있다.

축	어휘	색
금리	완화 / 중립 / 긴축	완화 `down` · 중립 `flat` · 긴축 `up`
물가	둔화 / 안정 / 상승 압력	둔화 `down` · 안정 `flat` · 상승 압력 `up`
성장	위축 / 둔화 / 확장	위축 `down` · 둔화 `flat` · 확장 `up`
위험 선호	회피 / 중립 / 선호	회피 `down` · 중립 `flat` · 선호 `up`

방향이 있으면 "긴축 쪽으로"처럼 덧붙이되, 색은 기본 어휘를 따른다.

`.gauge`에 `up` `down` `flat` 클래스를 붙이면 왼쪽 선과 상태 글자에 색이 들어간다.

빨강은 "더 높다 · 더 뜨겁다 · 더 많다", 파랑은 그 반대. 문서 전체의 색 규칙과 같다.

각 축에 상태, 근거 한 줄, 어제 상태를 적는다. 어제와 같으면 "어제와 같음".

어제 문서가 없으면(주초, 첫 실행) 직전 영업일 문서를 쓰고 그렇게 표기한다.

2.3 지표

표 다섯 개. 순서는 고정이다.

****1. 국내**** - 코스피, 코스닥. 증가, 전일 대비, 등락률.

****2. 투자자별 순매수**** - 외국인, 기관, 개인.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억 원. 마감 기준.

****3. 미국**** - S&P 500, 나스닥 종합, VIX. 그 날짜의 미국 증가.

****4. 아시아**** - 닷케이 225, 상해종합, 항셍, 대만 가권. 당일 증가.

****5. 매크로**** - 원/달러, 달러인덱스, 국고채 3년물,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WTI, 금.

> ****순서의 이유.**** 국내 지수와 수급은 한 장면이라 붙여 둔다. 그 다음 미국(원인)을 보고

> 아시아(같은 시간대의 반응)를 본다. 매크로는 앞의 네 표를 다 본 뒤에야 의미가 보여서 마지막이다.

각 표 아래 `src-note`에 기준과 출처를 적는다. 표에 못 들어간 사실(장중 고저가, 거래대금, 다우존스, 선물 동향)도 여기에 적는다.

2.4 흐름 읽기

이 문서의 중심이다. ****다섯 문단. 국내와 해외를 반반.**** 바깥에서 안으로 좁혀 온다.

문단	내용
1	그날 미국과 연준. 무엇이 지수를 움직였고, 다음 회의를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지표가 나왔으면 실제치와 예상치
2	아시아와 글로벌 금리 환율 원자재. 한국이 같이 움직였는지 혼자였는지
3	국내 시장. 지수가 어떻게 끝났고 왜 그런지. 미국장이 국내장 뒤에 열렸으면 그 시차를 밝힌다
4	종목과 업종. 무엇이 지수를 끌었고 무엇이 버텼는지. 국내 주도주와 미국 주도주를 함께
5	수급과 이번 주. 누가 사고 팔았는지, 이번 주가 무슨 주였는지, 다음 주 첫 일정

쓰는 법:

- ****첫 문장을 굵게(`)**** 그 문단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하고 나머지가 근거다.
독자가 굵은 문장 다섯 개만 읽어도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문단당 4~6문장. ****문장 하나에 숫자는 두 개까지.**** 짧게 끝낸다.
- 표에 있는 숫자를 본문에서 다 반복하지 않는다. 이야기에 필요한 것만 고른다.
본문의 역할은 숫자 전달이 아니라 숫자들 사이의 연결이다.
- 종목은 등락률과 증가를 함께, 업종은 상위 하위 둘셋씩. ****매수 매도 의견은 쓰지 않는다.****
무엇이 움직였고 무엇과 같이 움직였는지만 적는다.
- 1번과 2번은 재료가 없어도 비우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2.5 이번 주

두 부분이다. 위에 꺾적, 아래에 타임라인. **월요일마다 새로 시작한다.**

****꺾적 (sparkline).**** 이번 주 거래일의 증가로 그린 작은 선 그래프 네 개.
변수는 그 주 이야기의 핵심을 고른다. 코스피는 늘 넣고, 나머지 셋은 그 주에 가장 크게 움직인 것.
표는 값을 주지만 모양은 못 준다. 나홀 오르다 꺾인 것, 계단식으로 뛴 것은 선 하나가 더 잘 보여준다.

그리는 법:

- 인라인 SVG, ``viewBox="0 0 120 36"`. `polyline` 하나와 거래일마다 `circle` 하나. 외부 라이브러리 없음.`
- 점은 이번 주 거래일 수만큼. 월요일이면 점 하나이므로 그날은 꺾적을 생략하고 타임라인만 둔다.
- x는 0에서 120까지 등간격. y는 ``4 + (1 - (값 - 최소) / (최대 - 최소)) * 28``. 값이 클수록 위.
- 각 점에 ``circle`` (`r=2.5`). 오늘 점은 `r=3.5`로 조금 크게. 선과 점 색은 첫 값 대비 마지막 값의 방향. 올랐으면 svg에 ``class="up"`,` 내렸으면 ``down`,` 같으면 ``flat``.
- svg 아래 요일 라벨 한 줄 (``days``, 화 수 목 금). 점 위치와 맞게 양끝 정렬.
- 그 아래 첫 값과 마지막 값 (``range``).
- 지난주 금요일이 이번 주 이야기의 출발점이면 그 값을 첫 점으로 넣고 요일 라벨에 "지난 금"으로 적는다.

****타임라인.**** 거래일마다 한 줄. 그날의 제목이나 핵심 사실 하나와 코스피 등락률. 오늘 줄은 굵게.

이 섹션의 독자는 하루 건너뛴 사람이다. 이것만 보고 이번 주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2.6 눈여겨볼 뉴스

3~5건. 각 건에 제목, 왜 중요한지 한 줄, 출처 링크와 시각. "왜 중요한지"는 금리 환율 물가 성장 중 어느 축에 걸리는지로 연결한다. 정책 이벤트는 언론 기사가 아니라 원문(중앙은행 결정문, 통계청 보도자료)을 링크한다.

2.7 다가오는 일정

이번 주 남은 일정과 다음 주 초 큰 일정. 시각은 KST. 예상치가 있으면 적고 없으면 하이픈. 가장 중요한 1~3건은 굵게(``class="mark"```).

3. 수집

3.1 순서

0. ****쓸 수 있는 도구부터 확인한다.**** 아무 페이지나 하나 가져와 본다. 실패하면 이번 실행은 검색 결과만으로 가는 것이고, 그 전제로 계획을 다시 짠다. 이걸 먼저 안 하면 출처 지도를 따라가다 하나씩 막히면서 시간을 다 쓴다. (2026-09-16에 그렇게 썼다.)
1. 웹 검색으로 그날의 큰 그림을 잡는다.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면 무엇을 확인할지도 모른다.
2. 지표를 출처 지도(3.2)대로 모은다. 지수는 반드시 두 곳 이상.
3. 그날 나온 지표 발표를 확인한다. 실제치와 예상치.
4. 정책 이벤트가 있으면 원문을 읽는다.
5. 마감 사항 기사에서 수급과 반전 배경을 얻는다.
6. 캘린더에서 남은 일정을 확인한다.
7. 4절 검증을 돌린 뒤에 쓴다.

****페이지 가져오기가 막힌 날.**** 검색 결과의 요약과 제목만 남는다. 그때는 이렇게 한다.

- 한 항목을 한 번에 다 얻으려 하지 말고, 숫자 하나에 검색 한 번을 쓴다. 질문에 찾으려는 값을 그대로 넣으면(예: "코스피 6627.26 외국인 순매도") 그 값을 담은 기사 제목이 여러 개 걸려서 교차 확인이 된다.
- ****제목은 요약보다 믿을 만하다.**** 검색 요약은 숫자를 옮기다 틀리지만 기사 제목의 숫자는 대체로 정확하다. 요약과 제목이 다르면 제목을 따른다.
- 그래도 못 구한 값은 하이픈으로 두고 푸터에 적는다. 이 경로로는 원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푸터에 한 줄 적는다.

3.2 출처 지도

우선순위 순. 막히면 다음으로. 막힌 출처를 발견하면 이 목록의 갱신을 제안한다.

****국내 지수****

1. Google Finance ``google.com/finance/quote/KOSPI:KRX``. 마감 직후 증가 반영. 국내 언론 속보 목록이 함께 나온다.
2. Investing.com ``investing.com/indices/kosdaq``. 코스닥용이자 코스피 교차 확인용.
3. 마감 사항 기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비즈니스코리아, 머니투데이).

****투자자별 수급****

1. 마감 사항 기사. 지수 사이트에는 없다.
2. 두 매체 이상 대조한다. 수백억 원 차이는 흔하고 방향이 갈리는 날도 있다.

종목과 업종

1. 국내 마감 사항 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락과 업종별 상위 하위가 대부분 실려 있다.
2. Yahoo Finance 지수 페이지의 히트맵. S&P 500 페이지에 NVDA AAPL 등 주요 종목 등락이 나온다.
3. 미국 마감 기사(CNBC, EconCurrents). 그날 주도주와 이유.

미국 지수

1. Yahoo Finance `^GSPC`, `^IXIC`, `^VIX`. `At close` 표시와 날짜가 나와 신뢰할 수 있다.
2. CNBC 마감 기사. 이유가 정확하다. 페이지 가져오기는 403이므로 검색 결과나 브라우저로.
3. Charles Schwab Market Update. 지표 발표일에 실제치 예상치 연준 확률을 한 번에 준다. 브라우저 접근이 날마다 다르다.

아시아 지수

1. Yahoo Finance `^N225`, `000001.SS`, `^HSI`, `^TWII`.
2. 머니투데이 Asia마감 기사. 네 지수를 한 번에 준다.
3. Investing.com 각 지수 페이지.

금리

1. Investing.com `rates-bonds/south-korea-3-year-bond-yield`, `u.s.-2-year-bond-yield`, `u.s.-10-year-bond-yield`.
세 금리를 같은 출처로 맞춘다. 다음 날 조회하면 `Prev. Close`가 전날 증가다.
2. 미 10년물은 다른 출처와 2bp 안팎 어긋나는 일이 잦다. 어긋나면 밝힌다.

환율

1. 국내 마감 사항 기사의 원/달러 증가. 국내 주간 거래 기준.
2. Investing.com `indices/usdollar` (달러인덱스).
3. Yahoo `KRW=X`는 전일 기준이 국내와 달라 등락폭이 어긋난다. 참고용으로만.

원자재

1. Trading Economics `tradingeconomics.com/commodity/crude-oil`, `/brent-crude-oil`, `/gold`. 일간 값이 깨끗하다.
2. 미국 정산가 보도 (CNBC, Fortune).
3. Yahoo 선물 페이지는 상단 숫자가 호가일 수 있다. 쓰지 않는다.

정책 원문

1. 한국은행 `bok.or.kr/portal/singl/newsData/list.do?menuNo=201150`.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 브라우저로만 열린다.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3. 유럽중앙은행 `ecb.europa.eu/press/pr/`. 페이지 가져오기로 열린다.
4. 연준 `federalreserve.gov`.

지표 발표와 일정

1. Investing.com 경제 캘린더. 브라우저로 열고 This Week, Next Week 탭. 실제치 예상치가 함께 나온다.
2. Trading Economics 각 지표 페이지 본문. 다음 발표 일정이 적혀 있다.

막힌 출처

- 네이버 금융. 브라우저와 페이지 가져오기 양쪽 다 차단. (2026-09-08 확인)
- raw.githubusercontent.com. 브라우저 차단. PowerShell `Invoke-WebRequest`는 된다.
- 브라우저 창이 닫혀 있으면 모든 navigate가 실패한다. `preview\_start`로 먼저 연다.
- **실행 환경에 따라 페이지 가져오기가 전부 막힌다.** 2026-09-16 실행에서는 Yahoo Finance, CNBC, Investing.com, Trading Economics, 비즈니스코리아,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까지 시도한 도메인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셀의 네트워크도 함께 막혀 있었다. 웹 검색만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 그날 문서를 다 썼다. 이 목록의 우선순위는 "이 출처가 열린다면"을 전제로 한다. 전제가 깨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다(3.1의 0번).

3.3 함정 목록

실제로 틀렸던 것들이다. 하나씩 확인한다.

- **Yahoo의 코스닥(`^KQ11`)은 전일 증가가 하루 어긋나 있었다.** 쓰지 않는다.
- **Yahoo가 장중값을 `At close`로 표시한 적이 있다.** 시각을 본다. 14시 42분이면 장중이다.
- **Yahoo 아시아 지수의 `Previous Close` 필드가 하루 늦게 갱신된다.** 현재가에서 등락폭을 빼면 실제 전일 증가가 나온다. 역산값은 다른 출처로 확인한 뒤 쓴다. 휴장일에 조회하면 정확하다.
- **Yahoo 선물 상단 숫자가 호가(Bid)였다.** WTI 93.92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92.37이었다. 금도 같았다.
- **Investing.com의 현재가도 장중값일 수 있다.** 코스닥 815.53으로 적었는데 증가는 811.88이었다. 하루 지난 뒤 `Prev. Close`를 쓰면 정확하다.
- **수급이 매체마다 다르고 외국인 방향까지 갈린 날이 있었다.** 두 곳 대조, 어긋나면 양쪽 게재.

- ****검색 요약에 여러 날짜 자료가 섞인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다른 날 기사였다. 원문을 연다.
- ****페이지 가져오기 요약이 숫자를 잘못 읽는다.**** "1조 6,443억"을 "16.4 trillion"으로 옮긴 적이 있다. 수급처럼 자릿수가 중요한 값은 검색 결과와 대조한다.
- ****원/달러 24시간 시세와 국내 종가의 전일 기준이 다르다.**** 국내 종가를 쓴다.
- ****연준 인상 확률은 출처마다 다르다.**** CME 페드워치, 블룸버그, 선물 시장 기준이 각각 있다. 어제 값과 비교할 때는 같은 출처인지 확인하고, 다르면 밝힌다.
- ****지난 날짜를 뒤늦게 정리하면 그날 미국장이 이미 끝나 있다.**** 9월 8일자를 9일에 쓰면 미국 기준은 9월 4일이 아니라 9월 8일 종가다. 금리 달러도 같이 그날로 맞춘다.
- ****기사 제목의 부호가 틀린 적이 있다.**** "코스피 25.12포인트(0.38%) 오른 6659.25 출발"인데 전일 종가가 6684.37이었다. 오른 게 아니라 내린 것이다. 방향은 산술로 확인한다. (2026-09-15)
- ****검색 요약이 종가와 등락률을 짝이 안 맞게 준 적이 있다.**** 9월 14일 나스닥을 26,072.42(-0.99%)로 썼는데 실제는 26,186.41(-0.56%)이었다. 전일 종가에 등락률을 곱해 맞는지 보면 바로 걸린다.
- ****장중 시세를 종가로 준 요약이 많다.**** 특히 미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 CNBC와 FXStreet의 숫자는 기사를 쓴 시점의 값이다. 종가로 확정할 수 없으면 전일 대비를 비우고 그렇게 밝힌다.
- ****역산값은 역산이라고 적는다.**** 전일 종가를 "오늘 종가 빼기 전일 대비"로 만들었으면 꺾적 같은 보조 용도로만 쓰고 그 사실을 `src-note`에 적는다.

4. 검증

쓰기 전에 돌린다. 하나라도 통과 못 하면 그 항목은 확인 불가로 처리한다.

- [] 오늘 날짜를 실제로 확인했는가. 요일과 휴장 여부도.
- [] 코스피 코스닥이 두 출처에서 같은가. 전일 종가부터 맞춰 봤는가.
- [] 미국 지수의 `At close` 날짜가 맞는가.
- [] 아시아 지수 네 개가 그날 종가인가. 역산했으면 다른 출처로 확인했는가.
- [] 세 금리가 같은 출처, 같은 기준인가.
- [] 원자재가 호가가 아니라 체결가나 일간 값인가.
- [] 수급을 두 매체와 대조했는가.
- [] 그날 발표된 지표의 실제치와 예상치를 원문이나 캘린더에서 봤는가.
- [] 정책 이벤트를 원문으로 읽었는가.
- [] 어제 문서의 온도계 상태를 "어제:" 줄에 옮겨 적었는가. 색 클래스가 어휘와 맞는가.
- [] 꺾적의 점 개수가 이번 주 거래일 수와 맞는가. 값이 어제 문서들과 일치하는가. 요일 라벨이 점과 맞는가.
- [] 헤더가 측정값만 담고 있는가. 요약이 헤더의 숫자를 반복하지 않는가.
- [] 흐름 읽기가 다섯 문단인가. 각 문단 첫 문장이 굵고 그 문단의 주장인가. 문장당 숫자 두 개 이하인가.

****산술 검산.**** 출처를 못 여는 날에는 이게 유일한 교차 확인 수단이다. 여는 날에도 싸니까 돌린다.

- [] 지수마다 전일 종가 + 전일 대비 = 종가인가. 전일 대비 / 전일 종가 = 등락률인가. 셋 중 둘만 있으면 나머지를 만들어 보고, 안 맞으면 그 출처를 버린다.
- [] 투자자별 순매수의 합이 0 근처인가.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법인을 다 더한다. 수천억이 남으면 주체 하나가 빠졌거나 다른 날 수치가 섞인 것이다.
- [] 주간 등락률이 이번 주 첫 종가와 오늘 종가로 계산한 값과 맞는가.
- [] 며칠째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이 이번 주 꺾적의 값과 맞는가.

5. 쓰기

5.1 수치

1. ****모든 수치는 이번 실행에서 실제로 조회한 자료에서 가져온다.**** 기억이나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다.
2. 못 구한 항목은 하이픈 '-' 하나로 두고 푸터 "확인하지 못한 항목"에 이유와 함께 적는다. 빈칸을 그럴듯한 값으로 메우지 않는다.
3. 표마다 출처와 기준을 `src-note`에 적는다.
4. 출처끼리 어긋나면 둘 다 적고 어긋났다고 밝힌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5. 등락률 소수 둘째 자리, 지수 소수 둘째 자리, 환율 첫째 자리, 금리 셋째 자리(%). 금액은 조 억 단위 한글. "1,234억 원".

5.2 기준 시점

1. 문서 상단 `basis`에 국내, 아시아, 미국, 원자재 기준일과 작성 시각을 적는다.
2. 한국 시장은 종가. 장중 실행이면 "장중 ○시 기준"이라고 밝힌다.
3. 미국 시장은 그 날짜의 종가. 한국시간 다음 날 새벽에 끝난다는 점을 밝힌다.
4. 주말 휴장일은 직전 영업일 기준임을 명시한다.
5. 모든 시각은 KST.

5.3 해설

1. 조회한 사실에서만 도출한다.
2. 인과를 단정할 근거가 없으면 단정하지 않는다. "~때문에"가 아니라 "~가 배경으로 보도됐다".
3. ****전망과 예측을 쓰지 않는다.**** 시장 컨센서스 인용만 허용한다.
"시장은 인상 확률을 90%로 반영하고 있다" (O). "다음 주에는 반등할 것이다" (X).
4. ****투자 권유와 매매 의견을 쓰지 않는다.****
5. 모르면 모른다고 쓴다.

5.4 문체

- 담백한 평서문. "폭락", "패닉", "급등세 시현" 같은 과장을 쓰지 않는다.
- 방향과 크기를 함께. "하락"이 아니라 "1.2% 하락".
- 문단 하나에 논점 하나. 불릿은 나열이 자연스러운 곳에만.
- 독자가 아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는다(1절 독자 참조).

5.5 금지

- ****엠대시(U+2014)와 엔대시(U+2013).**** 하이픈만 쓴다. 파일 전체를 grep 해서 0이어야 한다.
- ****가운뎃점(·)을 한 줄에 둘 이상.**** 구분자로 쓰지 않는다.
- ****자리표시자 `[대괄호]`가 남는 것.****
- ****어제 문서를 복사해서 숫자만 바꾸는 것.**** 매일 새로 조회하고 새로 쓴다.

6. 디자인 잠금

`Skeleton.html`이 지키는 것. 내용을 채울 때 깨뜨리지 않는다. 근거는 `Setting/Design.md` (tasteskill `design-taste-frontend`, `github.com/Leonxlnx/taste-skill`)이며 이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진 것이다.
매일 실행할 때는 아래로 충분하다. 모양을 크게 바꿀 때만 원본의 4절, 8절, 9절, 14절을 읽는다.

1. 액센트는 딥그린 하나. 구조에만 쓰고 ****숫자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
2. 빨강은 상승, 파랑은 하락 전용. 장식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색을 가진 것은 데이터와 판단뿐이다.
케적의 선 색과 온도계의 선 색도 같은 규칙을 따른다. 빨강은 더 높다, 파랑은 더 낮다.
3. 모서리 반경 0. 예외 없음.
4. 표에 행마다 꺾선을 긋지 않는다. 헤더 아래 한 줄만.
5. 카드 상자를 남발하지 않는다. 여백과 얇은 선으로 묶는다.
6. 대문자 트래킹 라벨(아이브로)을 만들지 않는다.
7. 순수 검정 흰색을 화면용으로 쓰지 않는다. 인쇄는 예외.
8. 애니메이션 없음. 한 번 읽고 닫는 문서다.
9. 글꼴은 KoPubWorld 돌음 하나. ****`Setting/`의 TTF를 서브셋해 결과물 안에 심는다.****
CDN도, 상대경로 참조도 결과물에 남기지 않는다. 파일이 이 저장소를 떠나는 순간 둘 다 깨진다.
`Setting/`에는 Medium만 있어서 굵은 글자는 렌더러가 합성한다. 그대로 둔다.
10. 외부 참조 없음. 글꼴까지 파일 안에 들어간다. CSS, JS, 이미지, 차트 라이브러리 없음.
케적은 인라인 SVG로 직접 그린다.

7. 마무리

1. `out/YYYY-MM-DD.html`에 저장한다.
2. ****글꼴을 파일 안에 심는다.**** `Setting/`의 TTF에서 그 문서에 실제로 쓰인 문자만 골라 WOFF으로 서브셋하고 base64 data URI로 `@font-face`에 넣는다. `fonttools`의 `subset`을 쓰면 5.2MB가 40KB 안팎으로 줄어 문서 전체가 100KB를 넘지 않는다.
폴백 스택은 맑은 고딕을 앞에, 한글 글리프가 없는 Segoe UI를 뒤에 둔다.
글자 단위 폴백을 하지 않는 뷰어가 있다.
3. 4절 검증과 5.5 금지를 기계적으로 확인한다. 엠대시 0, 자리표시자 0, 표 5개 순서.
여기에 하나 더. ****`http`로 grep 해서 뉴스 출처 링크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4. 한글 글꼴이 깔리지 않은 환경에서 렌더해 눈으로 확인한다. 한글이 `?`나 네모로 나오면 글꼴이 안 심긴 것이다.

...

```
chrome --headless --disable-gpu --no-sandbox --window-size=880,1400 W
--screenshot=check.png file:///<절대경로>/out/YYYY-MM-DD.html
```

...

5. 라이트와 다크 양쪽을 본다.
6. ****파일부터 손에 쥐어 준다.**** 대화창이든 어디든, 완성된 파일을 먼저 넘긴다. 그 다음에 메일이든 저장이든 한다. 전달 수단에서 막히더라도 결과물은 이미 건너간 상태여야 한다.
7. ****헤더와 오늘의 요약****,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함께 알린다.
8. 막힌 출처나 새로 발견한 함정이 있으면 이 파일의 3절 갱신을 제안한다.

7.1 메일로 보낼 때

****첨부 없이 보내지 않는다.**** 본문만 보내는 것은 절반만 보낸 것이다. 2026-09-16에 첨부를 한 번 실패하고는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로 읽고 본문만 보내려 했다. 틀린 판단이었다. 아래는 그날 알아낸 것을 절차로 만든 것이다.

****1. 결과물을 두 벌 만든다.****

별	글꼴	크기	쓰는 곳
배포용	서브셋 WOFF2를 심는다	72KB (base64 9만 7천 자)	`out/`에 저장, 파일로 직접 건넨다
첨부용	`local()`만 두고 심지 않는다	31KB (base64 4만 2천 자)	메일 첨부

첨부용의 ``@font-face`는 `local("KoPubWorld Dotum Medium")` 세 줄만 남기고 `url()`을 지운다. 폴백 스택은 맑은 고딕을 앞에 둔다. **외부 참조는 여전히 0개다.**
 이건 9월 14일의 `?` 사고와 다르다. 그때는 CDN을 부르는데 한글 폴백이 없어서 깨졌다. 이건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받는 쪽에 KoPubWorld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맑은 고딕으로 간다. 한글이 `?`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글꼴을 심으면 파일이 두 배가 넘는다. 심은 글꼴이 base64로 한 번, 파일 전체가 다시 base64로 한 번, 두 번 부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첨부에는 심지 않는다.

****2. base64를 옮겨 적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첨부를 문자열로만 받는 도구라면 옮겨 적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된다.
****base64는 문법이 깨지면 API가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조용히 망가진 파일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 거절은 사고가 아니라 검사 결과다. 거절당하면 다시 보낸다.

- 한 번 실패를 "이 경로는 불가능하다"로 읽지 않는다. 그냥 다시 적는다.
- 4만 자는 한 번에 들어간다. 2026-09-16에 실제로 전부 전송됐고, 거절 사유는 길이가 아니라 내가 끼워 넣은 공백 한 칸이었다.
- 보내고 나서 첨부 바이트 수가 원본과 같은지 확인한다. 글자를 빠뜨리거나 더한 오류는 길이를 바꾸므로 여기서 잡힌다. 한 글자만 바뀐 오류는 3바이트만 망가뜨려서 문서가 읽히는 데 지장이 없다.

****3. 본문에도 리포트 전문을 심는다.**** 첨부가 회사 메일 서버에서 막힐 수 있다. 본문 HTML은 인라인 스타일로 쓴다. 메일 클라이언트는 ``<style>`` 블록과 ``@font-face`를 지운다. `<svg>`도 지우는 곳이 있어서 꺾은 본문에서 표로 바꾸고 첨부에만 남긴다.`

> ****글꼴을 밖에서 끌어오지 않는다.**** 2026년 9월 14일자를 CDN 글꼴로 만들어 보냈다가
 > 받는 쪽 망에서 CDN이 막혀 한글이 전부 `?`로 나왔다. 레이아웃과 색은 멀쩡했기 때문에
 > 받는 쪽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Setting/`의 TTF를 상대경로로 거는 것도 같은 이유로 안 된다.
 > 파일이 메일에 실려 나가면 그쪽에 `../Setting/`은 없다. 심거나, 심을 수 없으면
 > `local()`과 시스템 폴백으로 간다. 밖을 부르는 것만 안 된다.`

8. 시간

****컷오프는 오전 8시(KST)다.**** 국내 개장 전에 읽어야 의미가 있는 문서다. 8시를 넘기면 보내지 않는다. 늦게 온 시황은 시황이 아니라 기록이고, 받는 쪽의 하루를 방해할 뿐이다. 넘겼으면 파일만 남기고 그렇게 알린다.

완벽한 문서가 8시 반에 나오는 것보다 하이픈 몇 개가 있는 문서가 7시 반에 나오는 게 낫다. 못 구한 값은 하이픈으로 두고 푸터에 적으라는 5.1의 규칙이 바로 이 뜻이다. 그 규칙을 수집에도, 전달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미국장이 한국시간 새벽 5시에 끝난다. 그때부터 8시까지 세 시간이 전부다.

단계	상한	넘으면
도구 점검(3.1의 0번)	5분	검색 전용 경로로 확정하고 진행
수집	70분	남은 항목은 하이픈. 푸터에 사유
검증과 쓰기	50분	
렌더와 전달	30분	파일부터 건네고(7절 6번) 메일은 그 다음

8.1 실패를 읽는 법

2026-09-16에 가장 비쌌던 것은 막힌 도구가 아니라, 실패를 잘못 읽고 고민한 시간이었다.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고 대응이 반대다.

실패	신호	할 일
----	----	-----

```
|---|---|---|
| 도구가 못 하는 것 | 같은 입력으로 다시 해도 같은 결과. 403, 차단, 권한 없음 | 두 번째에 방법을 바꾼다 |
| 내 손이 틀린 것 | 입력을 다시 만들면 결과가 달라진다. 형식 오류, 오타 | 그냥 다시 한다. 횟수를 세지 않는다 |
```

페이지 가져오기 403은 앞쪽이다. 열 번 해도 안 열린다. 두 번에서 접고 3.1의 검색 경로로 간다. 첨부 base64 거절은 뒤쪽이다. 내가 한 글자 틀린 것이고, 다시 적으면 된다. 이 둘을 섞으면 열릴 문을 두드리다 지치거나, 닫힌 문 앞에서 한 시간을 보낸다.
****둘 다 2026-09-16에 했다.****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선택지 둘 중 어느 쪽이든 리포트의 내용이 같다면 그건 고민할 가치가 없는 갈림길이다. 빠른 쪽을 고르고 무엇을 골랐는지 밝힌다. 그날 첨부에 글꼴을 심을지 말지로 오래 잤는데, 정작 읽는 사람이 보는 숫자와 문장은 양쪽이 똑같았다. 7.1이 그 답을 이미 정해 뒀으니 다음부터는 재지 않는다.

9. 이 파일을 고치는 법

```
| 바꾸고 싶은 것 | 고칠 곳 |
|---|---|
| 온도계 어휘나 색 | 2.2 |
| 다루는 지표 | 2.3 |
| 문단 구성이나 분량 | 2.4 |
| 궤적에 넣을 변수 | 2.5 |
| 출처 | 3.2, 3.3 |
| 도구가 막혔을 때의 경로 | 3.1 |
| 감산 방법 | 4절 |
| 말투 | 1절 독자, 5.4 |
| 섹션 추가 삭제 | 2절 표와 `Skeleton.html` 양쪽 |
| 생김새 | `Skeleton.html`, `Setting/` |
| 글꼴 심는 법이나 전달 절차 | 7절, 7.1 |
| 첨부가 실패할 때 | 7.1의 2번 |
| 컷오프와 단계별 시간 배분 | 8절 |
| 실패를 어떻게 읽을지 | 8.1 |
```

읽다가 "이건 매일 안 봐도 되는데" 싶은 섹션이 생기면 지운다. 매일 읽게 되는 분량이 좋은 분량이다.